

독립영화의 집 건립 추진위 가동

전주시, 영화·건축·역사 분야 전문가 구성... 위촉식 열고 첫 간담회 가져

전주시가 영상거점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이 영화·건축·역사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추진위원회 가동으로 추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20일 전주시장실에서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 독립영화의 집은 단순히 독립·예술영화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 국내를 대표하는 독립영화의 성지로 기능하고 전주만의 문화적 정체성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온 가운데 시는 본격적인 설계를 앞두고 영화·건축·역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우선 영화 분야에는 이준동 (재)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주축으로 박홍식 (사)전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재)영화의전당 이승진 영화예술본부장, 김은정 전북일보 이사, 전주독립영화의 집 기본구상에 참여한 성기석 인문공간 파사주 대표 등 6명으로 꾸려져 전주만의 영화적 정체성이 담길 수 있도록 자문에 나선다.

건축 분야의 경우 전주시 최신헌 총괄건축가 겸 총괄조경가와 함께 건축 관련 전문출판사인 이윤출판의 이민 대표와 EAST4의 박준호 대표, 건축사무소 사이의 이진오 소장 등 총 4인이 참여해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축 전반



전주시는 20일 전주시장실에서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간담회를 가졌다.

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건물에 담을 역사 분야 전문가로는 전주역사박물관장을 역임한 이동희 예원예술대학교 교수가 위촉됐으며, 이기동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행정 부문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영화의 도시 전주의 상징으로 기능할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전주의 문화와 영화적 가치를 담아 내실 있게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에 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여 년간 전주국제영화제의 숙원이었던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은 독립·예술영화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수도권과 서울, 동남권과 부산에 편중돼 있는 영상산업 생태계의 균형추를 맞

추고, 전주시를 서남권을 대표하는 제3의 영상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지난 2017년 말부터 추진돼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전주 영화의 거리 핵심부에 위치한 현 옥토주차장(고사동) 부지를 매입 완료했으며, 지난 6월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차근차근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본격적인 착공은 내년 이뤄져, 오는 2024년 준공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65일 24시간 뛰는 영화의 심장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전주국제영화제 20년 숙원이었던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조성되면 국내외 독립영화의 메카이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영화영상산업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발족

위촉식 열고 첫 정기회의 가져... 하동현 교수 위원장 선출

전주시의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자문기구

가 꾸려졌다. 전주시는 2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촉식을 열고 첫 정기회의를 가졌다.

전주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기구다. 학계 전문가는 물론 법조계와 시의원, 언론인, 시민단체 회원 등 분야별 인사 16명으로 구성돼 오는 2023년 12월까지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하동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2년간 전주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를 이끌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자치분권 전략 및 추진과제 발굴을 위한 안건들을 살펴봤다.

향후 협의회는 자치분권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 위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근무자 격려

전주시보건소 역학조사팀 방문 애로사항 청취·격려품 전달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가 20일 전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신종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 등 방역업무에 투입된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의회가 20일 전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방문은 강동화 의장과 이미숙 부의장, 김은영 행정위원장,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 등 최소 인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강동화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방역업무 현장을 살펴보고, 전주시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현장 업무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강 의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확산 방지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까지 더해져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장단은 역학조사팀 외에 코로나19 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화산과 덕진 선별진료소에도 이번 주 중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보건소, 찾아가는 학교 방문접종

22일까지 방문 백신 접종 희망한 3개 학교 117명 중학생 대상

최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백신주사를 놓는 학교 방문접종에 나선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최근 교육부를 통한 학교단위 접종 수요조사에서 방문접종을 희망한 3개 학교, 117명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찾아가는 학교 방문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접종은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 제고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소아·청소년은 특히 무증상 감염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려운 데다 가정 및

포래집단으로의 감염이 확산된 이후에야 확인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백신접종이 중요하다.

방문접종 대상은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출생자 등 중학교 재학생으로, 모두 화이자 백신이 접종된다.

이번 방문접종에서 보건소는 백신수급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과 이상반응 신고 접수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교육청과 학교는 예진표·접종시행동위서 사전 배부, 소아·청소년 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방문 위탁의료기관은 접종 전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예진과 이상반응을 관찰하며 완

산·덕진 소방서 및 협력 병원 4곳에서는 이상반응 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에 대비키로 했다.

또 전주시보건소에서는 방문접종 외 접종을 원하는 경우 학교별 위탁의료기관 연계해 주며, 개별적으로 접종을 원하는 1차 미접종 소아·청소년들은 가까운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196개소에서 사전예약하거나 SNS 잔여백신 등을 활용해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사전접종 준비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까지 철저하고 꼼꼼한 접종 체계를 완성해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마음사랑병원,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이사장 김성익)이 전주시민의 정신건강을 돌볼 새로운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이 됐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20일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과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위탁 중인 전주시 정신건강복

지센터 위탁 기관이 이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을 새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은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게 된다.

협약식 이후에는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과 정운진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장, 김보영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예정자) 등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및 운영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관련 지난 2000년 5월 개소한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 등 재난 관련 심리 상담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자살예방 교육 등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힘써왔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